

문화·예술·기술·비즈니스 ‘디자인을 만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7일 개막 본전시·특별전·체험·교육 등 다채 신세계백화점서 팝업전시관 행사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
제다. ‘디자인을 만나다’는 디자인비엔날레의 본질
을 함의하는 것 같다.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와 예
술, 기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진다는
의미다.

세계 디자인 축제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나건 홍익대 교수)가 D-50일 앞으로 다가
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디자인비엔날레의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시내 일
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와
더불어 특별전, 기념전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디자인 체험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
램,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도 열릴 예정
이다.

행사 기간 30여개 국가의 디자이너 3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포스터디자인 초대전이 광주비엔날
레전시관에서 열리고,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
역 디자이너, 대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Design
Nexus(디자인 결함)’을 주제로 호남 디자인의 현
재와 미래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건 총감독은 “Meet (만남)’은 예술과 차별화
된 디자인과의 만남을 비롯해 트렌드와의 만남, 기
술 문화 등과 디자인의 만남 등을 전제한다”며 “다
양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디자인의 다층적인 의미와
작품이 구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만큼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
다”고 덧붙였다.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는 주제전은 4개 테마
로 꾸려진다. 국내외 디자이너, 기업들이 참여한 가
운데 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컬처, 비즈니스
등 4개 주제가 그것.

1관에서 펼쳐지는 테크놀로지는 LG, 르노코리
아, KG모빌리티, 뉴로메카 등 주요기업, 디자이너
들이 참여한다. AI(인공지능) 외에 로봇, 스마트
등 첨단기술과 만나는 미래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
다. 라이프스타일관(2관)은 일상 속 디자인과 볼
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컬처관(3관)은 문화와

디자인이 그리는 K-Culture, K-Design을 선보
인다. 비즈니스관(4관)은 삼성전자, 다이슨 등 글
로벌 기업의 혁신적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생 생 생 : 생태
를 만나다’를 주제로 작가, 디자인
너 등이 협업을 통해 구현한 다양
한 형태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
다.
디자인의 가치 등을 논하는 국제

학술행사도 마련돼 있다. 비엔날레관 3관에서 열리
는 국제학술행사는 피터 제(독일 레드닷 회장)를
비롯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나가자마
주리(일본 도카이대 교수), 권은
숙 (미국 조지아공과대 교수), 김
난도(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석
학들이 참여해 디자인의 가치와 트
렌드, 미래 등을 테마로 토론을 펼
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
램도 있다. ‘메타버스로 즐기는 디
자인비엔날레’ 외에 ‘나는야 리틀
큐레이터’, ‘어린이 디자인 교육프
로그램’이 진행된다. 르노코리아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디자인 워크
숍, 시민들과 함께 꾸미는 아트 페
스티벌 등도 열리며 양림동 일대의 명소를 탐방하
는 ‘양림골 정원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동구미로센터에서는 공예디자인을 매개로 문화
적 결혼을 제안하는 ‘순수의 결합_공예로 인연을
만나다’가, 조선대 정황남정보통신박물관에서는
TV 등 디바이스 발전사를 볼 수 있는 ‘Re : 제3의
물결’, 서남동 인쇄비즈니스센터에서는 인쇄 출판
디자인의 역사를 토대로 한 ‘연계·기념전’도 이어
진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9일 오후 2
시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문화광장에서 디자인비
엔날레 팝업전시관 오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시
민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디자인비엔날레의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시내 일
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와
더불어 특별전, 기념전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디자인 체험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
램,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도 열릴 예정
이다.



올해 본전시에서 공개될 ‘Design Meets K-POP’ 연출 장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자연과 인간의 교감 ‘환상자연’ 박상화 초대전, 30일까지 드영미술관

요즘처럼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 등을 여실하게
느낀 적이 있을까.

머칠 째 지속되고 있는 호우로 많은 희생자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지배를 당연
하고 무분별한 개발, 남획을 일삼았던 탓이다. 오늘
의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자연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와 열리고 있다.

기존의 서구적인 시선에서 자연은 지배와 개발의
대상이었지만 동양의 시각에서 자연은 인간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존재였다.

무등산 자락의 드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
상화 작가의 초대전 ‘환상자연’ (幻想自然, 30일까
지)은 자연과 인간과의 교감을 상징하고 있다.

동양의 자연관을 전시실 안으로 들인 이번 초대
전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
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등산 인문축제 기법으
로 기획했으며 자연을 벗으로 삼고 경외의 대상으
로 재인식하자는 취지 등을 함의하고 있다.

광주의 1세대 미디어아티스트인 박 작가는 사회
적 담론과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점차 미시적
이며 일상적인 것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후 현실에
서 만나게 되는 자연을 매개로 사유와 울림이 깊은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작가는 “영상의 숲 공간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
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풍경의 일부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한 침을 얻고 성찰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드영미술관에서 31일까지 진행되는 ‘환상자연’ 전시 장면.

1전시실에서 만나는 ‘사유의 정원’은 무등산과
주변을 초점화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무등산
사계의 아름다움과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서정적으
로 구현돼 있다. 마치 동양의 ‘무위자연’에 기반하
는 고려 가요의 한 구절 ‘청산에 살리라’가 환
기된다.

2전시실 ‘공중비디오 정원’은 맵핑 기법을 활용
해 가상의 디지털 자연을 펼쳐 보인다. 바라보는 이
를 풍경의 일부로 초청하는 듯한 기법은 ‘물아일

체’의 느낌을 선사한다.
한편 김수정 드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인간이 존
재하기 전인 태초 자연으로의 회복을 위해 예술가
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향한 예술적 실천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그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라며 “박상화의 환상자연을 거닐며 풍경이 가
진 미감과 무언의 소통을 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
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문화원에서 진행된 체험프로그램 모습.

〈ACC재단 제공〉

“여름방학에 초록별 지구 탐구해볼까”

ACC 재단, 30일~8월27일 예술로 기후 표현 프로그램 진행

기상 이변과 환경 위기 속에서 날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날씨와 기후 등을
주제로 함께 예술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 마
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여
름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초록별 지구 탐구생
활’이 그것.

오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ACC 어린이
문화원과 어린이창작실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초록별 지구를 탐
구하고 지켜내기 위한 실천행동을 예술로 구현
해보는 시간이다.

프로그램은 자연과 문화, 위기와 변화, 우리
들의 기후행동 등 3개 소주제로 진행되며 총 7
개의 세부과정과 3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
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날씨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하는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요즘처럼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에서 날씨에 대한 탐구는 흥미를 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내 손안의 작은 정원으로 휴가를 떠나
는 ‘나만의 여름정원 속으로’ 등 이색적인 프
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여름방학 상상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 동물
을 기억해! 도 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
한 멸종위기 동물 키링을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일일 선착순 50명에 한해 무료 참여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팝업 워크숍은 8월 19일
열리며 멸종위기동물을 그리는 발달장애 작가
강석준과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대
중과 친숙한 정은혜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들과
그림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별별직업탐구’도 관심을 모은다. 8월 24일 대
한민국 대표 배틀러이자 M.net 스트릿댄서
터의 엠비서스(Mbitious) 리더인 스트릿댄서
오현을 초청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
서라는 직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려줄 예정
이다.

아울러 ‘전시별책부록’으로 어린이전시 ‘5개
의 집과 30개의 문-상상하는 작가 안규철’과
‘공연별책부록’으로 어린이극장 무대에 공연
‘끼리?’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19일부터 ACC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참여 가능 연령 확
인)

재단 관계자는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모티브로 체험과 예술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
히 올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가뭄, 폭우,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지구를 돌
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으로 소통 ‘월간 정원버스킹’ 28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첫 무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정원버스킹이 오는 10월
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월간(月刊) 정원버스킹’이 오는 28일 오후 5
시 조례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첫 무대를 갖
는다. 공연의 공식 명칭은 음악으로 소통하는 거리
라는 뜻을 지닌 ‘음소거’. 공연은 월간이라는 흥
보 문구에서 드러나듯 10월까지 매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무대에는 ‘해움하랑 유랑극단’, ‘강스패밀
리’, ‘고도리’, ‘메아리’, ‘석공이’, ‘라이징썬’, ‘이
김이’ 등이 오를 예정이다. 특히 해움하랑 유랑극단
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
어 다채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아울러 오연이 시낭송가의 ‘몽규를 기억하며(강
수화 시인)’, 황희정 바이올리니스트의 ‘세르게이
트라파노프의 물도바’와 ‘사건의 지평선(윤하)’ 등
이 펼쳐진다. 이외 양승화, 이금순이 ‘사랑가’, 손
원기의 ‘차일수군’, 안예은의 ‘상사화’ 해금 연주도



해움하랑 유랑극단 단원들.

〈해움하랑 유랑극단 제공〉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해움하랑 유랑극단 관계자는 “순천이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며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원버스킹은 국립대학육성사업단과
순천대학교가 주최 및 주관한다. 무료 공연.

〈최필빈 기자 rubi@kwangju.co.kr〉